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와 외현화 증상과의 관계에서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탐색

이 주 리¹⁾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와 중학생의 외현화 증상과의 관계를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 종단자료를 통해 탐색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중 2 패널 데이터에서 2003년-2004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최종 분석 대상은 결측치를 제외한 총 3143명이었다. 연구문제 분석은 AMOS 7.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기 1(2003년)의 외현화 증상을 통제 한 후, 시기 1(2003년)의 부모양육태도가 1년 후인 시기 2(2004년)의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청소년의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은 낮아지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외현화 증상 수준이 높아진다.

주제어 : 부모양육태도, 외현화 증상, 자아통제, 자아존중감

1) 교신저자 :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E-mail : julie@cau.ac.kr)

I. 서론

중학생들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된 사춘기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게 되며 그만큼 공격 및 비행과 같은 외현적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동시에 학업과 인성형성에도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이는 훗날 성인이 되어 사회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하고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이 보이는 외현화 증상들은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 중대한 손실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춘기에 누구나 한번쯤 겪게 되는 단발적인 사건으로 넘기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며 예방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외현화 증상을 예측하는 요인들로 부모관련 요인과 자아관련 요인 등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그 원인들이 보고되어 왔으나 국내의 연구들은 대부분 횡단연구들로 이루어져(예: 고정자, 2005; 나유미, 임연진, 2003; 백혜정, 황혜정, 2006; 윤혜미, 박병금, 2005; 이경님, 2002)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부모양육태도나 자아존중감이 청소년들의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청소년들의 외현화 문제로 인해 부모들이 더 강압적인 양육태도를 취하게 되거나 혹은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다.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우선순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추적조사를 통해 동일 집단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시기에 반복 측정 한 종단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는

데, 두 시기 간 간격은 1년이 적절하다. 1년 이하의 단기적인 종단분석에서는 먼저 발생한 예측변수가 이후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며 1년 이상이 지나가면 다른 변인이 추가적으로 개입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Grych et al.,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시기 간 간격이 1년인 종단 분석을 통해 사춘기로서 가장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는 중학생들의 공격성 및 비행 등 외현화 증상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부모관련 변인으로 부모양육태도, 자아관련 변인으로 자아통제 및 자아존중감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부모양육태도는 자녀를 얼마나 애정적이고 수용적으로 대하는지와 관련되는 부모와 자녀 간 ‘관계의 질’로 파악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 가혹한 훈육을 많이 받거나(Criss et al., 2002), 거부와 제재를 많이 당할수록(정문자, 김문정, 2004) 자녀들의 외현적 행동문제는 높아졌으며 반면 부모의 온정과 지지를 많이 받는 아동들일수록 외현화 문제를 더 적게 경험하였다(Rothbaum & Weisz, 1994). 이는 부모와의 부정적인 관계가 청소년들의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양육태도에는 이러한 부모 자녀 간 ‘관계의 질’ 뿐 아니라, 자녀가 외출할 때 누구와 함께 어디에 무엇을 하러 가는지 등 자녀의 행동범위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와 관련되는 ‘부모 감독’도 포함 될 수 있다. 고정자(2006)의 연구에서 부모의 감독정도는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정문자와 김문정

(2004)의 연구에서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허용적이고 방임적일수록 자녀의 외현화 행동문제는 증가하였다. 이외에 나유미와 임연진(2003)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많이 파악하고 있을수록 자녀의 일탈행동 수준은 낮아지는 등 부모가 자녀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감독하느냐에 따라 청소년의 외현화 증상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자아관련 변인은 먼저 ‘자아통제’를 들 수 있다. 국외 연구에서 자아통제력과 외현화 증상을 포함하는 적응문제 간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Lengua, 2002), 국내의 연구에서도 스스로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비행은 줄어들었고(이경님, 2002), 자아통제력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아지는(백혜정, 황혜정, 2006) 등 자아통제는 공격성, 비행과 같은 청소년의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아통제’ 이외에 ‘자아존중감’도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자아존중감과 비행행동 간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윤혜미, 박병금, 2005)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지할수록 공격성이 높아졌고(백혜정, 황혜정, 2006; 이경님, 2006), 비행의 지속여부와 관계없이 비행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일반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았다(김희화, 2001).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자아존중감은 청소년들의 외현화 증상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러한 자아통제 및 자아존중감과 같은 인지적 특성들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변인

들에 대하여 부모양육태도의 영향을 받아 외현화 증상으로 이어지는 매개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통제 및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먼저, 어머니의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통제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Brody & Ge, 2001; Eisenberg et al., 2005) 부모의 감독 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통제력도 높아졌다(고정자, 2005). 또한, 양육행동이 애정적이고(이숙 등, 2000) 감독수준이 높을수록 (Menon et al., 2007) 자녀들의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이 부모양육태도와 외현화 증상 사이를 매개할 것으로 유추된다. 최근 국외 연구에서도 부부갈등 등의 부모요인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인지적 평가와 같은 특성들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ody et al., 2002; Eisenberg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 자아통제, 자아존중감, 외현화 증상에 대하여 그림 1과 같은 이론적 모델을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 패널의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종단분석을 통해 변인들 간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를 도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외현화 증상에 대한 바람직한 개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기 1(2003년)의 부모양육태도는 시기 2(2004년)의 외현화 증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시기 1(2003년)의 부모양육태도와 시

기 2(2004년)의 외현화 증상 간의 관계를 시기 1(2003년)과 시기 2(2004년)의 자아통제와 자아 존중감이 각각 매개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를 활용하였다. 이는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반복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한 종단설계자료이다. 표집지역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며 표집방법은 층화다단계집락표집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학생용과 가구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학생용은 학생들이 자기보고식으로 작성하는 방법이고 가구용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해 조사되었다. 패널 1과 패널 2로 이루어져 있으며 1차년도를 기준으로 패널 1은 중학교 2학년생 3449명, 패널 2는 초등학교 4학년생 2844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현화 행동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종단분석을 위해 패널 1 중 1차년도 중 2학년(2003년)과 2차년도 중 3학년(2004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결측치를 모두 제외하고 최종 3143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 도구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 요인은 ‘관계의 질’과 ‘부모감독’으로 측정하였다. ‘관계의 질’은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등 총 6문항의 총점으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의 질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시기 1(2003년)에 .856, 시기 2 (2004년)에 .882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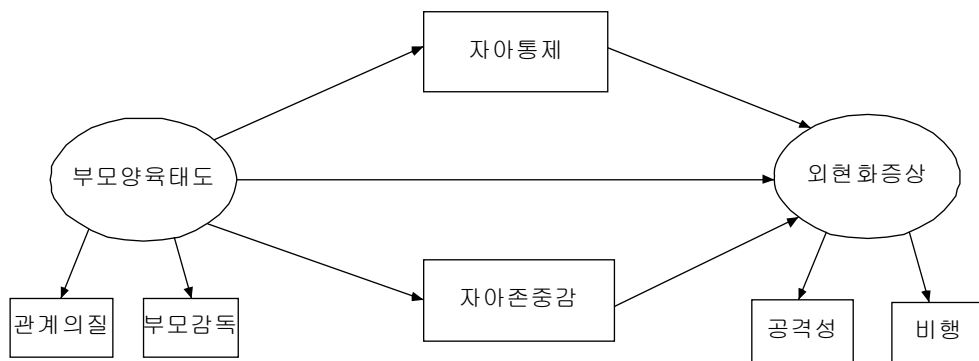


그림 1. 이론적 모델

‘부모감독’은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 등 총 4문항의 총점으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감독 정도가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시기 1(2003년)에 .852, 시기 2(2004년)에 .870이었다.

자아통제

자아통제는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 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나는 화가 나면 물건을 가리지 않는다.’ ‘나는 학교숙제를 제때에 잘 해가지 않는 편이다.’ 등 총 6문항의 총점으로 측정되었으며 각 문항들은 likert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모두 역코딩하였으며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통제가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시기 1(2003년)에 .646, 시기 2(2004년)에 .688 이었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등 총 6문항의 총점으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이다. 이 중 뒤의 3문항은 부정적 자존감을 측정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역코딩되었으며 따라서 총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시기 1(2003년)에 .734, 시기 2(2004년)에 .741 이었다.

외현화 증상

외현화 증상은 ‘공격성’과 ‘비행’으로 측정하였다. ‘공격성’은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나는 내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등 총 6문항의 총점으로 측정되었으며 각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시기 1(2003년)에 .764, 시기 2(2004년)에 .781 이었다.

‘비행’은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출경험’ ‘성관계 경험’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패싸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뺨듣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원조교제’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남을 협박하기’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왕

따) 시키기' '성폭행이나 성희롱하기' 등 총 14 문항의 총점으로 측정되었으며 각 문항들은 '전혀 없다' 와 '있다' 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시기 1(2003년)에 .705, 시기 2(2004년)에 .724 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AMOS 7.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하였으며 SPSS 12.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링은 여러 변인들의 관계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은 하나의 통합된 이론적 모델을 검증할 때에 보다 효율적인 분석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III.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은 1차년도를 기준으로 중학교 2학년생이었으며 2차년도에 중 3이 되었다. 성별은 남학생 50%(1572명), 여학생 50%(1571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은 1차년도 기준으로 15세가 78.1%(2454명)로 가장 많았고, 14세 21.7%(682명), 16세 이상이 0.2%(7명)였다. 가족구성형태는 친양부모 가정이 93.5%(2939명)로 대부분이었으며 한부모 가정이 5.0%(157명), 계부모 가정이 0.7%(24명), 양친 모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0.7%(23명)였다. 아버지

교육수준은 고졸이 44.5%(1372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졸 30.2%(931명), 중졸이하 11.9%(366명), 전문대졸 6.9%(212명), 대학원 이상이 6.5%(199명) 순이었다. 어머니 교육수준은 고졸이 58.9%(1802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졸이하가 17.3%(528명)였고, 대졸 17.2%(527명), 전문대졸 4.9%(151명), 대학원 이상 1.6%(51명) 순이었다. 아버지 직업은 사무 종사자가 23.4%(714명)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5.2%(464명), 판매 종사자 14.0%(427명),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2.9%(394명) 등이었다. 어머니 직업은 무직(가정주부)이 48.8%(1512명)로 전체의 절반이었으며, 그 외 판매 종사자 17.4%(539명), 서비스 종사자 11.0%(341명) 등이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101만원-200만원이 32.4%(963명), 201만원-300만원이 28.9%(857명)였으며 그 다음으로 301만원-400만원 14%(413명), 100만원 이하 9.9%(292명), 401-500만원 8.8%(261명), 501만원 이상 6.0%(179명) 순이었다.

2.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모든 변인은 2003년과 2004년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각각 큰 변화 없이 비슷하였다. 평균값을 통해 살펴볼 때 2003년, 2004년 모두 부모관계의 질은 비교적 긍정적인 편이었으며, 부모 감독은 중간 수준이었다. 자아통제와 공격성은 중간을 약간 밑돌았으며 자아존중감은 중간 수준이었다.

표 1.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M	SD	점수 가능 범위
2003(년)			
부모관계의 질	20.03	4.63	6-30
부모감독	12.88	3.46	4-20
자아통제	16.09	4.01	6-30
자아존중감	18.96	3.72	6-30
공격성	16.55	4.23	6-30
비행	15.13	1.67	14-28
2004(년)			
부모관계의 질	20.49	4.55	6-30
부모감독	13.48	3.36	4-20
자아통제	16.25	4.11	6-30
자아존중감	19.60	3.77	6-30
공격성	16.65	4.32	6-30
비행	14.76	1.41	14-28

비행의 경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심각한 비행은 저지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변인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 간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이론적 모델의 경로를 중심으로 변인들 간 관계를 차례로 살펴보면, T 1 관계의 질은 T 1 부모감독, T 1 자아통제, T 1 자아존중감, T 2 자아통제 및 T 2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모두 $p < .01$) T 1 공격성, T 1 비행, T 2 공격성 및 T 2 비행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모두 $p < .01$). T 1 부모감독은 T 1

자아통제, T 1 자아존중감, T 2 자아통제 및 T 2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모두 $p < .01$) T 1 공격성, T 1 비행, T 2 공격성 및 T 2 비행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모두 $p < .01$). T 1 자아통제는 T 2 자아통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p < .01$), T 1 공격성, T 1 비행, T 2 공격성 및 T 2 비행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모두 $p < .01$). T 1 자아존중감은 T 2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p < .01$) T 1 공격성, T 1 비행, T 2 공격성 및 T 2 비행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모두 $p < .01$). T 1 공격성과 T 1 비행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p < .01$). T 2 관계의 질은 T 2 부모감독, T 2 자아통제 및 T 2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모두 $p < .01$) T 2 공격성 및 비행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p < .01$). T 2 부모감독도 T 2 자아통제 및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p < .01$) T 2 공격성 및 비행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p < .01$). T 2 자아통제는 T 2 공격성 및 비행과 모두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모두 $p < .01$). T 2 자아존중감 역시 T 2 공격성 및 비행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모두 $p < .01$). T 2 공격성과 비행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p < .01$). 이를 통해 볼 때, 시기 1(2003년)의 부모양육태도(T 1 관계의 질, T 1 부모감독)가 긍정적일수록 시기 2(2004년)의 외현화 증상(T 2 공격성, T 2 비행)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뿐만 아니라 시기 1의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시기 1과 시기 2의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경로를 통해서도 청소년들의 외현화 증상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변인들 간 상관관계

	1.T1 관계의 질	2.T1 부모 감독	3.T1 자아 통제	4.T1 자존감	5.T1 공격성	6.T1 비행	7.T2 관계의 질	8.T2 부모 감독	9.T2 자아 통제	10.T2 자존감	11.T2 공격성	12.T2 비행
2003(T1)												
1	1											
2	.513**	1										
3	.209**	.212**	1									
4	.305**	.248**	.265**	1								
5	-.093**	-.087**	-.465**	-.203**	1							
6	-.172**	-.172**	-.383**	-.171**	.338**	1						
2004(T2)												
7	.566**	.344**	.156**	.214**	-.045*	-.113**	1					
8	.378**	.499**	.175**	.168**	-.062**	-.123**	.558**	1				
9	.151**	.154**	.534**	.193**	-.318**	-.270**	.144**	.140**	1			
10	.188**	.147**	.182**	.432**	-.101**	-.104**	.242**	.182**	.220**	1		
11	-.106**	-.073**	-.316**	-.165**	.496**	.229**	-.102**	-.074**	-.393**	-.186**	1	
12	-.126**	-.143**	-.294**	-.106**	.220**	.542**	-.133**	-.135**	-.304**	-.119**	.25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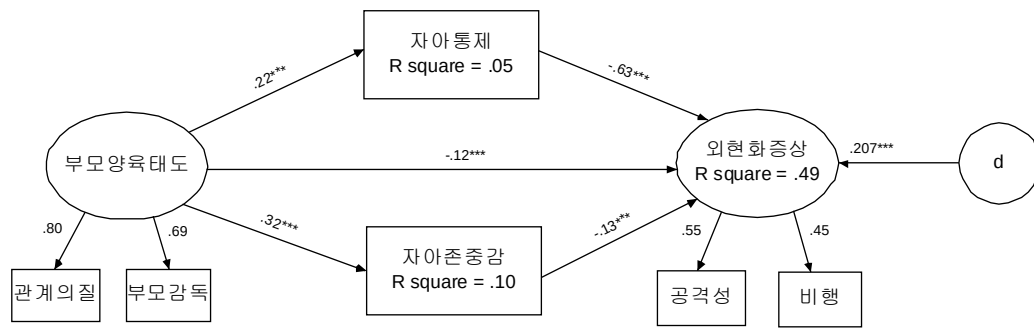
** p<.01

4. 횡단 분석 결과

2004년에 수집된 자료로 제안된 이론적 모델이 적합한지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으로 검토하였다. 본 자료는 다변량 정규성이 전제되지 않아, 일반최소자승법(Generalized Least Square: GLS)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제시된 추정치는 표준화 계수이다. 본 모델에서 Chi-square=113.945, df=6, p=.000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Chi-square 값이 본 연구에서 처럼 표본이 매우 큰 경우 통계적 검정력의 증가로 인해 ‘모형이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시키기 쉬운 특성(배병렬, 2007)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고려해볼 때, GFI= .988, AGFI= .958, RMSEA = .076 등으로 나타나 이론적 모델은 자료를 잘 적합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론적 모델이 포함하고 있는 각 변인 간 경로추정치를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는 외현화 증상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12$, $p < .001$). 또한,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beta = .22$, $p < .001$) 자아통제가 외현화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63$, $p < .001$) 부모양육태도가 자아



*** $p < .001$

Chi-square=113.945, $df=6$, GFI= .988, AGFI= .958, RMSEA=.076, $N=3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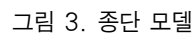
그림 2. 횡단적 이론모델

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beta = .32$, $p < .001$), 자아존중감이 외현화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beta = -.13$, $p < .001$) 등 부모양육태도는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외현화 증상에 간접적으로도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제안된 이론모델에 포함된 모든 변인 간의 경로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나 본 이론모델의 타당성이 검증되어 종단자료로 인과분석이 진행되었다.

5. 종단 분석 결과

시기 1(2003년)의 부모양육태도를 외생변수로 설정하고, 시기 1과 시기 2(2004년)의 자아통제 및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시기 2(2004년)의 외현화 증상을 내생변수로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시기 1(2003년)의 외현화 증상을 통제하기 위해 이를 외생변수로 설정하여 각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시기 1의 외현화 증상이 시기 2의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안정성을 통제하였

고, 둘째, 시기 1의 외현화 증상이 시기 1의 자아통제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셋째, 시기 1의 외현화 증상이 시기 2의 자아통제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인 자아통제 및 자아존중감에 대하여서도 부모양육태도에서 시기 1의 자아통제 및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경로를 설정하여 시기 1의 자아통제 및 자아존중감을 통제하였다. 시기 1의 자아통제 및 자아존중감이 시기 2의 자아통제 및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경로도 추가하여 이들의 안정성을 통제하였다. 추정법은 횡단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최소자승법(Generalized Least Square: GLS)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3과 같으며 제시된 추정치는 표준화 계수이다. Chi-square= 688.434, $df= 24$, $p=.000$ 으로 영가설이 기각되었으나 이는 앞서 횡단모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매우 큰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GFI=.956, AGFI=.900, RMSEA=.094 등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이론적 모델이 자료를 잘 적합시키고 있어 양호한 모델로



한편,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부모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자아

통제가 자아존중감보다 더 큰 설명력을 보였으며(자아통제 시기 1: $R^2=.41$, 시기 2: $R^2=.32$, 자아존중감 시기 1 및 2: $R^2=.20$), 본 모델에서 설정된 변인 간의 관계에서 설명되는 외현화 증상은 86%로 매우 높았다($R^2=.86$).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민감하고 불안정한 사춘기를 보내며 외현화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연령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외현화 증상과의 관계에서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과 같은 정서·인지적 특성의 매개과정의 역동적인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년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시기 1(2003년)의 외현화 증상을 통제하고 각각 시기 1(2003년)과 시기 2(2004년)의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어떠한 경로를 통해 시기 1의 부모양육태도가 시기 2의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 간 ‘관계의 질’과 ‘부모감독’으로 측정된 부모양육태도가 1년 후의 ‘공격성’과 ‘비행’으로 측정된 중학생의 외현화 증상에 미치는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양육태도는 자아통제 및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청소년의 외현화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의 온정과 긍정적 표현성이 청소년의 외현화 증상에 대하여 청소년의 자아통제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선행

연구결과(Eisenberg et al., 2005)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는, 청소년기가 됨에 따라 부모와 상호작용하는 시간도 감소되고 또래 등 다른 환경의 영향이 중요해 지면서(Eisenberg et al., 2005), 부모양육태도가 직접 청소년의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수년간 부모양육태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청소년의 정서·인지적 특성(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이 외현화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자녀 간 애착 정도가 높고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지도 감독할수록 자녀들의 자아통제 및 자아존중감은 높아지고, 이것이 외현화 증상 수준을 낮추게 된다. 반면 부모-자녀 간 애착 정도가 낮고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지도·감독하지 않을수록 자녀들의 자아통제 및 자아존중감도 낮아져 외현화 증상 수준은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 자아통제는 얼마나 충동적이고 얼마나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남을 놀리는 것을 재미있어 하고 얼마나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지 등의 의미를 포함하여 측정되었다. 이는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기까지 다년간 축적된 부모양육태도유형이 자녀들의 자아통제와 같은 기질적 특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의 이와 같은 기질적 특성이 외현화 증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로 측정되는 자아존중감과 같은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의 형성에도 사전의 부모양육태도유형이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이 외현화 증상의 수준에 직접 영향을 주어 부모

의 양육태도유형은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면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주기 보다는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과 같은 정서, 인지적 특성을 매개로하여 간접적으로 청소년의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의 외현화 행동에 대한 예방과 지도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반영한다.

첫째, 부모에 대한 개입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청소년들의 자아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을 높임으로써 외현화 증상을 낮추는 것이다. 자아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부모양육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자녀들과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나누는 행동들이 중요하다. 동시에,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녀가 외출했을 때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즉, 자녀와 질 높은 관계 유지와 자녀의 행동에 대한 지도·감독이 함께 이루어야 하는데, 부모들이 이러한 양육태도를 조화롭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나 지역공공기관 등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TV 프로그램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벌인다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자녀인 청소년에 대한 개입이다. 스스로 자신의 충동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대신 보다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충동적인 욕구가 생겼을 때 그것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또한, 자신을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길로 빠지지 않고 보다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자원봉사와 같이 타인을 돕는 활동들은 사회적 공감능력을 길러주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자아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외현화 증상의 수준과 관련되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의 설명력은 자아존중감보다 자아통제에 대하여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자아존중감에 대한 개입도 중요하지만 자아통제에 대한 개입을 보다 더 집중적으로 이루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겠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통제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등이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연구·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기는 미래를 준비하고 이후의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발달 과정 상 주변의 유혹을 받기 쉬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보일 가능성 또한 크기 때문에 성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청소년기의 외현화 증상들은 이 시기에 이루어야 할 인지적 능력, 사회적 기술 등을 습득할 기회를 방해하며 또래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이후 성인이 되어서의 삶에까지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러한 과거가 낙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외현화 증상에 대한 개입 방향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꾸준히 밝혀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와는 달리 시간 상 선행이 존재하는 종단자료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통제 및 정서적 조절감을 매개로 하여 중학생들의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특히, 이전 시기의 외현화 증상이 다시 이후의 외현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했을 뿐 아니라, 매개변인인 자아통제 및 자아존중감에 대해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안정성을 통제함으로써 이러한 인과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의 외현화 증상에 대한 효율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것이 기대되며,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와 외현화 증상, 자아존중감과 외현화 증상에 대하여 한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처럼 부모양육태도가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이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녀들의 외현화 증상이 부모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공격성 및 비행과 같은 외현화 행동을 보임으로써 이에 대한 지도와 훈육으로 인해 부모양육태도가 더욱 거부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자아존중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외현화 행동을 통해 바람직하지 못한 길로 들어섬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모양육태도와 외현화 증상, 자아존중감과 외현화 증상에 대하여 종단자료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인간 상호관련성을 모델에 설정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학생의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여학생의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다를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 집단을 나누어 분석할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외현화 증상 간의 관계에서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과 같은 특성들만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이 외에 다른 정서·인지적 특성들도 탐색해 보다 역동적인 과정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1년 종단분석을 통해 변인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더 광범위한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청소년들의 외현화 증상과 그 예측요인에 대한 발달궤적을 탐색할 것이 권장된다. 한 가지 예상되는 것은 성인기에 가까워지는 청소년 후기로 갈수록, 사춘기 동안 급격히 변화했던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이 안정되면서 이러한 외현화 증상이 감소될 가능성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시기 1의 자아통제 및 자아존중감을 통제함으로써 시기 1의 부모양육태도가 시기 2의 자아통제 및 자아존중감을 통해 시기 2의 외현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이는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으로 설정되는 인과관계의 방향은 명확히 해주지만,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은 여전히 횡단관계인 한계를 가진다(Grych et al., 2003).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확장된 종단분석을 통해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인과적 경로도 명확히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정자 (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2), 1-17.
- 김희화 (2001). 청소년의 초기 비행과 지속적 비행에 대한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8(1), 143-162.
- 나유미, 임연진 (2003).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리와 청소년의 일탈행동.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4(3), 87-98.
- 배병렬 (2007). Amos 7에 의한 구조방정식 모델링-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백혜정, 황혜정 (2006).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3), 1-27.
- 윤혜미, 박병금 (2005).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행동 관련 요인-생태체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8, 133-164.
- 이경남 (2002).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 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8), 191-206.
- 이경남 (2006). 아동의 개인, 가족변인 및 학교 적응 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5(1), 31-44.
- 이 숙, 우희정, 김미란 (2000). 어머니의 애착 과 양육 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3(1), 64-72.
- 정문자, 김문정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5), 11-27.
- Brody, G. H., Dorsey, S., Forehand, R., & Armistead, L. (2002). Unique and protective contributions of parenting and classroom processes to the adjustment of African American children living in single-parent families. *Child Development*, 73(1), 274-286.
- Brody, G. H., & Ge, X. (2001). Linking parenting processes and self-regulation to psychological functioning and alcohol use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 82-94.
- Criss, M. M., Pettit, G. S., Bates, J. E., Dodge, K. A., & Lapp, A. L. (2002). Family adversity, positive peer relationships, and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risk and resilience. *Child Development*, 73(4), 1220-1237.
- Eisenberg, N., Zhou, Q., Spinrad, T. L., Valiente, C., Fabes, R. A., & Liew, J. (2005). Relations among positive parenting,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externalizing problems: 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76(5), 1055 - 1071.
- Grych, J. H., Harold, G. T., & Miles, C. J. (2003). A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appraisals as mediators of the link between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4(4), 1176 -1193.
- Lengua, L. J. (2002). The contribution of emotionality and self-regulation to the

- understanding of children's response to multiple risk. *Child Development*, 73(1), 144-161.
- Menon, M., Tobin, D. D., Corby, B. C., Menon, M., Hodhes, E. V. E., & Perry., D. G. (2007). The developmental costs of high self-esteem for antisocial children. *Child Development*, 78(6), 1627-1639.
- Rothbaum, F., & Weisz, J. R. (1994). Parental caregiving and child externalizing behavior in nonclinical sample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55 - 74.
- 1 차원고접수 : 2008. 04. 01.
수정원고접수 : 2008. 05. 28.
최종게재결정 : 2008. 06. 05.

An Initial Investigation into Self - Control and Self - Esteem as Mediators in the Link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the Externalizing Symptoms of Middle School Students

Lee, Ju lie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hild Welfare, Chung-Ang University

This longitudinal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and self-esteem on the associations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the externalizing symptoms middle school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3143 middle school students (2003-2004 panel 1 data of the Korea Youth Panel Survey).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dicated that self-control and self esteem mediated the associations between time 1 parenting behaviors and the externalizing symptoms of time 2 middle school students, after accounting for the effects of time 1 middle school students' externalizing symptoms.

Key words : Parenting Behavior, Externalizing Symptom, Self-Control, Self-Esteem